

금융시장 '블랙 먼데이'... 환율·금리 뛰고 코스피 급락

제물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이 국내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원·달러 환율이 13년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며 1350원을 넘어섰고 국제 3년물 금리도 다시 3.6%를 돌파하는 등 발자 증상을 보였다. 코스피와 코스닥도 2%대 급락했다.

2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31.3원) 보다 19.1원 오른 1350.4원에 마감했다. 장 마감 기준으로 2009년 4월 28일(1356.8원) 이후 13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날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하루 새 1.41% 나 하락했다. 이는 2020년 3월 23일(-1.57%)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 하락한 것이다. 당시 원·달러 환율은 하루 새 20원 급등했다.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2원 오른 1342.5원에 개장한 후 장중 1350.8원까지 올라갔다. 지난 23일 기록한 장중 연고점(1346.6원)을 4거래일 만에 다시 돌파했다. 장중 고가 기준으로 2009년 4월 29일(1357.5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달라인덱스는 109선을 넘었다. 미 동부시간으로 29일 오전 2:30분 현재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0.46% 오른 109.30에서 등락중이다. 2002년 6월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 세 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 높아져
코스피, 파월 매파적 발언에 2.2% 하락해 2420선으로
원화가치 하루 새 1.41% 하락... 2년5개월새 최대 하락폭

정부의 구두개입성 발언에도 환율 급등세를 막아낸 역부족이었다. 방기선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에서 과도한 풀립현상이 나타날 경우에 대비해, 시장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최근 우리 금융시장이 미국 등 주요국 금융시장과 동조화가 심화된 측면이 있으므로 당분간 시장 상황에 대한 주의 깊은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매파 기조가 확인돼 당분간 달러 강세 기조를 꺾을 수 있는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반면 유로화의 추가 약세 흐름은 강화될 수 있어 달러화 가치의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불안한 대외 여건을 고려할 때 1400원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제 금리도 발자 증상을 보였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 장 마감 기준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장보다

0.128%포인트 오른 연 3.653%,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0.099%포인트 오른 3.715%를 기록했다. 3년물 금리가 3.8%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 6월 23일(3.608%) 이후 두 달 만이다. 같은 달 25일(3.66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년물 금리는 0.148%포인트 오른 3.683%를, 5년물은 0.146%포인트 오른 3.761%를 기록했다. 20년물은 0.106%포인트 오른 3.658%를, 30년물은 0.087%포인트 오른 3.589%를 기록중이다. 이날 국제 금리는 전 구간 큰 폭 상승했다.

코스피도 장 초반부터 급락하면서 2.2% 하락해 2420선으로 후퇴했고 코스닥도 2.8% 급락한 770선까지 밀려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2481.03)보다 54.14포인트(2.18%) 내린 2426.89에 장을 닫았다. 지수는 전일보다 1.97% 내린 2432.06포인트에 출발해 장중 낙폭을 유지하며 거래를 종료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5589억원, 463억원을 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홀로 6002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802.45)보다 22.56포인트(2.81%) 하락한 779.89에 거래를 종료했다. 지수는 전일보다 2.74% 내린 780.48에 출발해 낙폭을 유지하며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시장에서 기관은 홀로 1588억원어치를 팔아차였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025억원, 671억원을 매도했다.

투자자들은 지난 주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주최로 열린 경제정책 심포지엄(잭슨홀 미팅)의 파월 미 연준 의장 발언에 주목했다.

파월 의장은 28일(현지시간) 잭슨홀 미팅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있다고 확인할 때 까지 경계에 부딪힐 정도의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40년 만에 최고 수준에 근접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강력히 사용할 것"이라며 "또 한번 이례적인 큰 폭의 금리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높은 금리와 성장 둔화, 약해진 노동시장 여건이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사이 가계와 기업에도 일정 부분 고통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9월 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상 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파월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경기를 둔화시킬 정

도의 높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매파적 메시지로 9월에도 7월 수준인 0.75%포인트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물가 지표가 다소 둔화하며 올해 말에 금리 인상을 완화할 것이라는 파월 피벗(정책전환) 기대가 사라졌다. 파월 의장 연설 이후 미 증시 3대지수 모두 3%대 급락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28일(현지시간)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3.03% 하락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3.37%, 3.94% 폭락했다.

다음 달 세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 단행 가능성도 높아졌다. 28일(현지시간) 미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미 연준이 9월 FOMC에서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68.5%로 나타났다. 파월 연설 이전인 26일 61.0%와 비교해 7.5%포인트 더 높아진 것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진행됐으나 앞으로 그 강도가 약해지거나 방향성이 반대로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당장 내달 2일 미국 고용보급도가 발표되기 전까지 금리 상승에 취약한 업종은 피하면서 매크로에 무관한 업종 중심으로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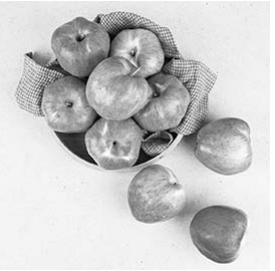
친환경 녹색공간 '초록세상 1호' 조성

NH농협은행 전북본부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경민)는 29일 이등복지시설에 친환경 녹색공간을 만드는 NH초록세상 1호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전주지역아동센터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장경민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 박병철 전북농협 노조위원장 김혜란 센터장 등이 참석해 천연 이끼식물원 스킨디아모스로 만든 식물벽(Plant Wall)을 조성했다. NH초록세상은 농협은행 ESG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미세 먼지로부터 자유롭고 쾌적한 청소년 교육공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지역아동센터에는 천연 이끼인 스킨디아모스로 만든 친환경 식물벽이 설치됐으며 가습 및 제습 효과가 뛰어난 공기정화식물을 통해 실내 미세먼지 감소 및 인테리아 효과 등 아동시설 교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경민 본부장은 "이번에 조성한 녹색공간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예담채 사과, 라이브커머스에서 전북농협, 추석 맞아 오늘 오전 11시에 할인 판매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전라북도 농산물 광역브랜드 예담채 사과를 추석 명절을 맞아 30일 오전 11시에 라이브방송을 통해 할인 판매한다. '예담채'는 아릅답고 깨끗한 예함을 의미하며, 천혜의 환경과 정성을 깃들여 재배한 농산물을 가득 담은 그릇과 미소 짓는 사람의 입술을 모티브로 하여 햇살 가득한 명품농산물이 가득한 곳, 고객에 예를 다하는 곳, 즉 전라북도의 예함과 진풍 그리고 자연을 대표하는 광역브랜드이다. 이날 방송은 무주반딧불초합공동사업법인에서 담도 및 규격을 엄격히 선별한 사과를 추석명절을



맞아 선물세트 3.5kg상자로 제공되며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 방송당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300박스 이상으로 20%이상 할인된 가격에 무료배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정재호 본부장은 "추석명절이 예년보다 빨라 농산물의 초기출하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소비자 부담이 늘어났습니다"며, "전북농협은 직거래 라이브커머스 등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해 저렴하고 건강한 전북의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고 판매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현대차, 9월 신입사원 상시채용 진행

연구개발 · 생산 · 전략지원 · 디자인 등 직무별로 내달 6~8일 온라인 메타버스 설명회

지원자 편의성 제고현대자동차가 올해 두번째 신입사원 상시채용을 9월 1일부터 진행한다. 연구개발(R&D), 생산(Manufacturing), 전략지원, 디자인 등 다양한 직무를 대상으로 모집하며 14일까지 서류 접수권을 받는다.

현대차는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직무 별로 메타버스 채용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지원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메타버스 채용 설명회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https://talent.hyundai.com)를 참고하면 된다.

현대차는 지난 7월 베헤 가능한 상시채용을 도입, 매 홀수일 1일마다 각 부문별 대졸 신입사원(일반직 및 일부 연구직, 채용전환형 인턴 포함) 채용 공고를 현대차 채용 페이지에 일괄 게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원주=이종복 기자

기준에 진행하던 상시채용의 경우 각 현업 부문마다 채용 공고 게시 시점이 달라 지원자가 수시로 공고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일괄 게시 방식을 통해 지원 준비가 더 용이해졌다는 지원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는 앞으로도 신입사원 채용 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현직자와 지원자 간 소통을 보다 강화하고, 채용 절차 기간을 단축해 지원자에게 만족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채용 절차에 있어 지원자들을 더욱 고려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는 2019년 2월부터 신입사원 채용 시 각 현업부문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선발하는 직무 중심의 '상시 공개채용'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원주=이종복 기자



전북대학교 취업지원과는 29일 기업탐방 성과가 우수한 14개 팀을 선정해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며 격려하는 2년째 행사를 열었다.

'기업의 달인되기'로 취업역량 '레벨 업'

전북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학생들 71명 참여 직무 이해도 높아... 우수팀 시상

전북대 권민주 학생(화학공학부 20학번)은 대학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기업의 달인되기'에 참여해 평소 목 표했던 기업을 직접 탐방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기업을 탐방해 현직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취업에 대한 준비사항을 스스로 체크해 보고 방향성을 재정립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전북대 '기업의 달인되기'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큰 호응과 만족감 속에 올해 26개 팀 71명이 참여했다. 이에 전북대 취업지원과는 29일 기

업탐방 성과가 우수한 14개 팀을 선정해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NH농협은행, DB금융투자 등을 찾아 기업 분석과 직무 관련자 인터뷰 등을 충실히 내용은 '기업군'팀의 김혜민·이치현(이상 경영학과)·임재민(회계학과) 학생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IG디스플레이, GS칼텍스, SK하이닉스 등을 탐방한 '기업찾아 삼만리'팀(화학공학부 권민주·이민주·최예은·추소현),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탐방한 '공단역'탐(경영학과 박승주·무역학과 이

성민)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무역협회, 전북경제특성산업진흥원 등을 탐방한 '청해진'팀(국제인문사회학부 박태경·무역학과 황덕건)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대상을 받은 이치현 학생(경영학과 4년)은 "평소 꾸준히 금융권 취업이라는 한 우물을 파며 준비하고 있었는데, 기업의 달인되기 프로그램 덕분에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계기가 됐다"며 "금융권 취업에 대한 생각들이 보다 선명해졌고, 포상까지 받게 돼 기쁨이 두배"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은성 기자

도, 제로페이 15% 할인 '소비쿠폰' 발행

소비자에 월 50만원 한도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에게 1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총 9억원 규모의 전북 제로페이 소비쿠폰을 발행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북 제로페이 소비쿠폰의 구매한도는 1인당 쿠폰 가액으로 월 최대 50만원이다. 15% 선 할인된 금액으로 비플 제로페이 어플 등 제로페이의 연계된

결제 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전북 제로페이 소비쿠폰'은 모바일 상품권으로 1만원권, 2만원권, 5만원권 등 3종류로 발행한다. 소비자는 결제어플(비플제로페이) 등에서 도내 3만 5천여 오프라인 가맹점 확인 및 결제가 가능하며, 제로페이 이용자들에게는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15%)보다 높은 소득공제(30%) 혜택이 주어진다. 전북도는 소비쿠폰 발행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물가로 인한 소비자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통육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제로페이 결제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연말 정산시 30% 세제 환인 혜택도 있다"며,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서로 윈-윈(win-win)하는 착한 소비를 동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고창산림조합, 올 하반기 금융리딩 회의 열어

고창군립조합은 지난 26일 2022년도 전북 '가 그룹 7개 조합을 대상으로 금융리딩 회의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산림조합중앙회는 2019년부터 성장성을 비롯해 수익성, 건전성, 생산성, 캠페인 등 금융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우수한 실적을 달성한 조합을 그룹별로 선정하여 리딩회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림조합 중앙회 김인철 상호금융 수시부장, 전북지역본부 임택관 과장, 전북 '가 그룹'으로 선정된 고창군 정읍시, 완주군, 부안군,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산림조합 금융과장들이 참석해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악화된 경영환경 속에서 그룹 차원의 새로운 변화 등을 모색하고 추진 및 여성 층대 방안 및 마케팅 우수/실례 사례, CS 교육 및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또, 산림조합중앙회 김인철 상호금융 수시부장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의 시대를 맞아 하반기 경영 불확실성이 점차 심화되는 가운데 성장보다는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를 강화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고객에게 신뢰를 유지해달라고 강조하였다.

고창군립조합 조합장 금융과장은 그룹별 정기 전략회의를 통해 각 조합의 노하우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조합 간 동반성장과 고객에게 신뢰 받는 산림조합금융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maeil.com